

산·학·연·관 교류의 장

회장 강 일 준 (한림대 교수)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올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Coronavirus Pandemic)이 선언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Post-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시대적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방역 및 면역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강조되었던 적이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활용된다면 이런 위기도 값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위기(危機)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 부딪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1971년 창립된 이래 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식품영양학 분야를 선도하는 학술공동체로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와 100세 건강시대를 열어갈 국민영양 및 식품과학 학술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Journal of Medicinal Food(SCI)’,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KCI, SCOPUS 등재)’, ‘Preventive Nutrition and Food Science(KCI, SCOPUS 등재)’, ‘식품산업과 영양’ 산업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산업심포지엄, 국제심포지엄과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민건강증진, 식생활 개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HACCP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산·학·연·관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절실한 만큼, 우리 학회의 산업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산업계의 동향과 학회 회원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로, 산학협력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공간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정보전달 메신저로 부족함이 없는 산업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식품산업과 영양” 제25권 1호는 시의적절하게 ‘우리나라 전통식품류의 면역 기능성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산업지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저자분들과 귀한 원고들을 정성껏 편집하여 주신 산업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산업지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독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